

## '모범형사' 장승조 "뜨거운 사랑 감사...강력 2팀 다시 만나길"

등록 2020.08.26 11:47:03



[서울=뉴스시스]배우 장승조. (사진=에이스팩토리 제공)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강진아 기자 = 배우 장승조가 JTBC 월화드라마 '모범형사'를 종영하며 "강력 2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다들 그리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장승조는 26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를 통해 밝힌 일문일답에서 "지난 추운 겨울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열정을 다해 만들었던 작품인데 무더운 여름 뜨거운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그 작품의 한 인물로 서있음에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승조는 극 중 끈질기게 수사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럭셔리 엘리트 형사 '오지혁' 역을 맡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드러내지 않는다'였다. '척'하고 싶지 않았고 멋 부리고 싶지 않았다"며 "오지혁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잘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 집

중하는 인물로 보였으면 했다"고 말했다.

극이 전개되면서 오지혁의 숨겨진 사연이 드러나고 변화된 모습도 보였다. 장승조는 "매번 인물을 만날 때마다 그 인물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숨겨져 있는 이면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다"며 "오지혁은 그 안에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시스]배우 장승조. (사진=블러썸스토리, JTBC스튜디오, 에이스팩토리 제공) 2020.08.26. photo@newsis.com  
액션신도 주목을 받았다. 장승조는 "감독님께서 항상 '장물물 힘들지? 액션이 너무 많지?'라고 할 때마다 '너무 재미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해보고 싶은 장르"라고 말했다.

이어 "박홍두(신재휘)를 잡는 신에서 너무 많이 뛰어서 집에 갈 때 다리가 풀렸는데, '체력이 이거 밖에 안 되나' 스스로 충격받았다"며 "그날 이후 스쿼트를 거의 매일 하면서 체력을 키웠고, 또 다른 장면을 찍을 때 그전보다 훨씬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손현주와의 호흡엔 고개를 끄덕였다. 장승조는 "촬영 초반에 '편한대로 하라'는 그 말 한마디의 힘이 끝까지 갔다"며 "'사랑하는 승조~'라며 격려해주고 다 받아주셔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다. 많이 깨닫고 느끼는 배우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현주~ 손현주~'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장승조는 "항상 작품을 한다는 건 용기이자 도전이고 두려움인데 '모범형사'를 통해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용기가 됐다. 좋은 선배님들, 동료분들과 함께 강력2팀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이 사랑해주

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 두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뉴스시스]배우 지승현. (사진=블러썸스토리, JTBC스튜디오 제공)

극 중 정한일보 사회부장 '유정석' 역을 맡은 지승현도 소속사 바를정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중영소감을 전했다.

지승현은 "유정석을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많이 아쉽지만, 조만간 더 좋은 연기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며 "'모범형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랜 시간 여운을 주는 작품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극 초반 정의로워보였던 '유정석'은 후반에 돌입하며 5년 전 살인의 진실이 드러났다.

지승현은 "유정석은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강해지고 독해져야만 했다. 집요하게 찾아낸 조성기에겐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오종태가 짓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까지 포기한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고 독한 사람이 됐다"며 "그래서 더 안쓰럽고 슬픈 인물인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유정석이 어떤 인물인지 최대한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쁜지 착한지 알 수 없게 초반에는 최대한 감정 표현을 자제했다"며 "후반부 유정석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격렬한 감정 변화보다 그 안에서 혼자 고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시스]배우 오정세. (사진=블러썸스토리, JTBC스튜디오 제공) 2020.08.26. photo@newsis.com

유정석의 명장면으로는 '나는 살인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직접 써내려간 신을 꼽았다. 지승현은 "본인 손으로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을지, 마지막까지 기자로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기자정신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모범형사'의 메시지는 '성장'이라고 했다. 지승현은 "형사와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나 끊임없이 실수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또 그 과정을 발판삼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우리 사회의 모범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극 중 '오종태'를 맡아 악역 연기로 긴장감을 더한 오정세도 소속사 프레인TPC를 통해 종영 소감을 밝혔다.

오정세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크고 작은 잘못 앞에서 우리 사회가 자신의 잘못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모범형사' 안에서 오종태는 합당한 벌을 받고, 배우 오정세는 조금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ak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